

## 역사 속 인물의 韓中 비교 연구

— 田橫을 중심으로 —

배 중 석\*

<目次>

- |                   |                  |
|-------------------|------------------|
| I. 서론             | III. 시작품 속 전횡 형상 |
| II. 한중 지식인의 전횡 평가 | IV. 결론           |

<국문 초록>

전횡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다. 그와 그의 오백 빈객은 의리를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한중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평을 짓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횡을 평가하는 글에서 중국 지식인이 더 다양한 평가를 내렸고, 시작품에서도 중국 지식인이 더 다양한 측면으로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평가하고 형상화하는 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두 가지 알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은 전횡의 유적지를 실제로 답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서적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관념이 다소 자유로운 반면, 한국은 오로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주제어】 전횡, 오백 빈객, 한중, 義理, 성리학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 bccs@hanmail.net

## I. 서론

한국은 삼국시대에 漢나라로부터 한자와 한문을 받아들인 뒤 구한말까지 끊임없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기실 한문이 나라의 공식 문자인 이유도 있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늘 중화문명을 향한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중엽 이후 원나라에 다녀온 학자들에 의해 실천 윤리를 강조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국내의 정치와 문단에 일대 파장이 일어났다. 결국 성리학은 조선을 건립하는 데 중요한 이념을 제공했고, 중화문명을 향한 조선 지식인들의 생각이 더욱 확고해져갔다. 이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을 때는 성리학적 의리사상의 표출로 對明義理를 주장하기도 하고, 小中華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후 성리학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처럼 성리학이 한반도에 들어와 긴 세월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리사상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새롭게 부각된 인물이 있다. 그는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고, 그를 따르던 오백 빈객들은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역시 죽음으로 의리를 보여주었다. 바로 司馬遷의 『史記』에 등장하는 齊나라의 마지막 왕 田橫이다.<sup>1)</sup>

전횡은 신라 말 최치원의 문집인 『桂苑筆耕集』에 이미 등장하였지만,

1) 전횡의 고사는 司馬遷의 『史記』, 「田儻列傳」에 자세히 나온다. 전횡은 秦나라 말 齊나라 왕으로 자립한 田儻의 사촌 동생이다. 전담 이후 전담의 아들 田市, 전횡의 형인 田榮, 전영의 아들 田廣,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횡에게 왕위가 이어진다. 하지만, 전횡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제나라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그는 오백 빈객과 함께 동해에 있는 섬으로 달아났다. 이후 한 고조가 그 무리를 근심하여 부르니, 전횡은 한나라 수도 낙양으로 가다가 “처음에 나와 한 고조는 모두 왕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니 참기 어렵소”라 하며 자결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섬에 남은 오백 빈객도 모두 전횡을 따라 자결하였다.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성리학이 받아들여진 고려 말엽부터이다. 이는 성리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리사상을 전횡의 자취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이후 그는 조선 지식인들의 글 속에 끊임 없이 등장하였다. 특히 민간에서는 전횡이 신격화 되어 서해안의 몇몇 섬에서는 실제 사당을 지어 매년 洞祭를 지내기도 했다.<sup>3)</sup>

한편, 전횡은 한나라 초기에 살았던 인물이니 만큼, 그에 관한 기록은 중국에 더 많이 남아있다. 사마천은 그의 자취를 기록할만하다고 여겨 『사기』에 입전했다. 그런데 『사기』의 내용 중에 왕실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고 여겨져 한나라 때는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이후 당나라 때 『사기』가 과거시험에 포함되면서 비로소 많은 지식인들이 읽게 되었다. 이때부터 전횡은 韓愈를 비롯하여 지식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전횡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이처럼 전횡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중국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의 사당을 찾을 수 있는 점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횡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이 역사 속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2) 고려 말 東方理學의 시조로 불린 鄭夢周는 고려 사직을 저버리지 않고 실천유학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 성리학의 의리사상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러한 의리사상이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면서 사림과 혹은 이학파라 불리며 의리를 중심으로 내면적 본성을 강조하였다. (沈佑燮, 「麗末鮮初 性理學思想의 현대적 조명-전통의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pp.242-243. 참고.) 이러한 의리사상이 전횡과 오백 빈객이 실천한 절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충남 보령의 외연도와 녹도, 전북 군산의 어청도에서 동계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경엽·송기태의 「서해안 동계의 중국계 신격 전횡 연구」(『도서문화』 35집, 도서문화연구원, 2010.)와 김효경의 「서해의 신령이 된 전횡」(『역사민속학』 제3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현재 중국에는 山東省 靑島市 卽墨에 있는 田橫鎮과 田橫島를 비롯하여 田橫山(蓬萊市), 田橫墓(偃師市) 등 전횡의 이름 딴 마을과 정부에서 지정한 문물보호구가 곳곳에 있다.

형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과거 한중 지식인들의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I. 한중 지식인의 전횡 평가

### 1. 모범적인 인간상

전횡에 대한 평가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미 하였다. 劉邦은 전횡이 자결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 평민에서 일어나 삼형제가 번갈아 왕을 하니, 어찌 어질지 아니한가?”<sup>5)</sup>라고 했으며, 사마천은 “전횡의 고상한 절개와 그의 빈객들이 의리를 흠모하여 따라 죽은 것은 어찌 더할 수 없는 현명함이 아니리오. 나는 이런 이유로 열전에 올렸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지 않는데, 그 절개를 그릴 수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sup>6)</sup>라고 평하였다. 사마천의 경우 전횡의 고상한 절개뿐만 아니라, 빈객들의 의리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후 班固는 “전횡의 지조와 절개며 빈객들이 의리를 좋아하는 데도 자립할 수 없는 것은 어찌 천명의 뜻이 아니겠는가?”<sup>7)</sup>라 하며 당시 천명은 한나라에 기울어져 있었으니, 의리를 좋아하는 빈객들까지 있었지만, 전횡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다. 반고는 여기에서 漢나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천명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諸葛亮은 “전횡은 제나라의 장사일 뿐이나, 또한

5) 司馬遷, 『史記』, 『田儼列傳』, “嗟乎, 起自布衣, 兄弟三人更王, 豈不賢哉.”

6) 司馬遷, 『史記』, 『田儼列傳』 (丁範鎭의 옮김, 『史記列傳』中, 까치, 1995, pp.541-542. 참고.), “田橫之高節, 賓客慕義而從橫死, 豈非至聖. 余因而列焉. 不無善畫者, 莫能圖, 何哉.”

7) 班固, 『前漢書』卷33, 『魏豹田儼韓王信傳』(四庫全書/史部), “橫之志節, 賓客慕義, 猶不能自立, 豈非天庖.”

의리를 지키며 굽히지 않았다.”<sup>8)</sup>고 평하였다. 제갈량이 손권을 설득할 때 했던 말이다. 손권이 “유비는 왜 조조를 섬기지 않는가?”하니, 제갈량이 이와 같이 말하고서 “전황의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것을 왕실의 후예이며 세상을 덮을만한 뛰어난 재주를 지닌 유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갈량은 유비를 치켜세우기 위해 전황을 끌어와 비유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은 당나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의 글이거나, 단편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나라에 들어와 『사기』가 본격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전황을 애도하는 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나라 한유(768~824)는 795년 낙양으로 가는 길에 전황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전황의 높은 의리에 감동하여 제문을 지었다.

이 일이 아득한 백세 전의 일이면서 서로 감동을 주니, 저는 제가 지금 어떤 심정에서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라면, 누가 저를 이처럼 멈출 수 없이 목 메이며 흐느끼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어디에 부자께서 행하신 것과 비슷하게 한 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아! 저는 부자를 외면하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진나라가 패망한 때에 한 명의 선비만 얻어도 왕이 될 수 있었건만, 어찌하여 오백 명이나 시골벽적한데도 부자께서는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말입니까? 혹시 귀하게 여긴 오백 빈객이 어질지 않았거나, 또는 천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옛날 關里[공자 서당]의 여러 선비들은 공자 같은 성인도 곤액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비록 옆 어진들 무슨 상심이 있겠습니까?<sup>9)</sup>

- 8) 陳壽, 『三國志·蜀志』卷5, 「諸葛亮」(四庫全書/史部), “權曰 苟如君言劉豫州, 何不遂事之乎? 亮曰, 田橫, 齊之壯士耳, 猶守義不辱, 況劉豫州, 王室之胄, 英才蓋世, 衆士慕仰, 若水之歸海. 若事之不濟, 此乃天也. 安能復爲之下乎?”
- 9) 韓愈, 『昌黎文鈔』卷16, 「祭田橫墓文」(四庫全書/集部), “事有曠百世而相感者, 余不自知其何心. 非今世之所稀, 孰爲使余歔歔而不可禁. 余既博觀乎天下, 曷有庶幾乎夫子之所爲. 死者不復生, 嗟, 余去此其從誰? 當秦氏之敗亂, 得一士而可王, 何五百人之擾擾, 而不能脫夫子於劍鏃? 抑所寶之非賢, 亦天命之有常? 昔關里之多士, 孔聖亦云其遑遑. 苟余行之不迷, 雖顛沛其何傷?”

한유는 진사에 오른 뒤 여러 차례 등용에 실패했을 무렵 이 제문을 지었다. 그는 전횡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자취가 아직까지 남아서 자신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백 명이나 되는 빈객이 있으면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오백 명이 어질지 않았거나, 또는 천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을 『史記』의 「孔子世家」에 공자가蔡나라에 3년을 머문 뒤 楚나라로 가는 길에 陳나라 대부와 蔡나라 대부가 보낸 부하들에게 곤약을 당한 일에 비유하고 있다.

한유는 천명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이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다. 등용에 여러 번 실패한 그는 전횡의 오백 빈객은 그래도 따를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따라야 할 사람이 없으니 죽은 전횡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결국 전횡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천명으로 실패했듯이, 한유 역시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지만 자신의 길을 가다가 천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다는 것이다.

송나라 蘇軾은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위나라 조조에게 답한 편지를 상상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옛날 전횡은 제나라의 유민이오. 한고조가 역생의 원한을 풀어주고 사신을 섬에 보내어 “횡이 오면 크게는 왕, 작게는 제후로 삼을 것이다”라 말하였는데, 오히려 스스로 목을 베고, 유씨에게 옥보이기를 싫어하였소. 반면, 한신은 제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고도 한나라에 손이 묶여 집안에서 죽지도 못하였소. 예로부터 동공일체의 사람과 영웅호걸지사는 세상이 혼란하면 그들의 힘을 빌려 정벌을 하고, 세상이 평온하면 다스릴 적에 반드시 원망하고 시샘하니, 한신처럼 죽기보다는 어찌 전횡처럼 절개 있게 죽지 않겠소?<sup>10)</sup>

10) 蘇軾, 『東坡全集』 卷100, 「擬孫權答曹操書」(四庫全書/集部), “昔田橫, 齊之遺虜. 漢高祖釋酈生之憾, 遣使海島, 謂橫來, 大者王, 小者侯, 猶能以力自剄, 不肯以身辱於劉氏. 韓信以全齊之地, 束手於漢而不能死於牖下. 自古同功一體之人, 英雄豪傑之士, 世亂則藉以剪伐, 承平則理必猜疑, 與其受韓信之誅, 豈若死田橫之節也哉.”

소식은 손권이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전횡을 한신과 비교하였다. 그는 한신은 제나라 땅을 다 차지하고도 결국 한나라 조정에서 손이 묶여 죽었는데, 전횡은 한 고조에게 옥보이기 싫어서 스스로 목을 베어 절개 있게 죽었다고 하였다. 특히 손권이 조조에게 ‘한신처럼 죽기 보다는 전횡처럼 죽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소?’라고 말한 것을 보면, 소식은 전횡의 절개를 한신보다 높이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명나라 때 王紳(1360~1400)은 『田橫論』에서 “선비가 임금을 섬길 적에 몸소 나아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나, 임금이 선비를 얻어서 마음속으로 심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sup>11)</sup>라고 하여 전횡이 오백 빈객을 마음속으로 심복하게 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 湛若水(1466~1560)는 『格物通』에서 “두 객이 황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면 평생토록 주인을 섬긴 것이 그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전횡은 두 객과 오백 인이 자기를 따르다가 죽었다면 평소 은혜와 예로써 결속한 것이 그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후세에 아래·위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다.”<sup>12)</sup>고 하였다. 전횡은 윗사람으로서, 오백 빈객은 아랫사람으로서 모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는 전횡이 의리를 굽히지 않았다고거나, 그가 실패한 것은 천명이니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한신보다 처신이 더 뛰어났다고거나, 오백 빈객을 심복시켰다고거나, 윗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 王紳, 『繼志齋集』 卷5, 「田橫論」(四庫全書/集部), “士之事君, 能致其身而不吝其死者, 固難, 君之能得士而結其心者, 爲尤難.”

12) 湛若水, 『格物通』 卷44, 「事君使臣」 中(四庫全書/子部), “臣若水通曰, 二客, 以不貳心於橫, 而自刎以死, 則生平之所以事其主者, 將無所不盡其忠矣. 田橫, 致二客五百人之從已以死, 則平日之所以恩禮結之者, 亦將無所不盡其誠矣. 可以爲後世上下之法也已.”

즉, 중국에서 전횡은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義에 따른 상반된 평가<sup>13)</sup>

한국에서는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온 뒤부터 전횡이 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전횡은 성리학이 들어온 초창기에는 주로 시에 등장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조선 문인들이 전횡에 대해 평가한 글이다.

(1)

그 충의와 강개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니, 이는 횡이 끝내 자살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오백 명의 빈객들이 같은 날 죽으면서 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겼으니, 그의 깊고 지극한 성의에 격앙하고 감발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처럼 맹렬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이 때문에 일찍이 그 재주는 작으나 그 심지는 크고, 그 뜻은 잃었으나 그 義는 가련하다고 여기지 않은 적이 없다.<sup>14)</sup>

(2)

나는 항상 전횡의 죽음을 슬퍼한다. 죽어서 세상에 義를 드러내지 못하고, 한갓 분통해서 자살한 것에만 견주어 논하며 평가하니, 전횡이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이 더욱 슬퍼할만하다. (중략) 내가 역대 興廢한 시대를 살펴보니, 처신을 올바르게 한 자가 모두 4명이었다. 은나라의 箕子와 微子, 제나라의 전횡, 한나라의 北地王 劉誼뿐이다.<sup>15)</sup>

13) 이 절의 내용은 줄고, 「田橫論에 대한 연구」(『민족문화』 제4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4) 李渠, 『活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續32) 卷5, 「田橫自殺」, p.499, “其忠義慷慨之心, 至今猶未已, 此橫之所以終自殺也歟. 且五百之客, 同日就死不啻如歸, 非其深誠至意激昂感發, 何能若是之烈烈耶? 吾以是未嘗不小其才而大其志, 傷其意而憐其義也.”

15) 李獻慶, 『艮翁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234) 卷22, 「田橫論」, p.464, “余常悲



(3)

제나라 전횡을 어찌서 의롭게 죽었다고 하는가?

횡의 죽음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다. 횡의 마음은 다만, “나와 한나라 왕은 함께 남면하여 왕이라 일컬었는데, 하루아침에 형세가 궁색해져서 몸을 굽혀 섬겨야 하니 매우 부끄럽구나.”라고 말하였다. 羞惡之心이 이와 같으니 그 의가 성대하다고 할 것이다. 어찌 의롭게 죽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16)</sup>

(1)은 李穡(1613~1654)가 전횡의 자살을 논한 쓴 글이다. 그는 전횡이 자살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의와 강개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오백 명의 빈객들이 따라 죽은 것은 전횡의 지극한 성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義를 높이 평가하였다.

(2)는 李獻慶(1719~1791)이 전횡에 대해 논한 글이다. 그는 전횡을 단지 분통해서 자살한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횡은 箕子와 微子, 그리고 北地王 劉誼과 대등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義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은 한말의 학자 許愈(1833~1904)가 朴升奎의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허유는 전횡이 의롭게 죽었다는 근거를 羞惡之心에서 찾았다. 수오지심은 『맹자』에 나오는 四端의 하나로 ‘義’의 실마리가 된다. 이 때문에 수오지심이 있으면 義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횡은 자결하기 전에 “나와 한나라 왕은 함께 남면하여 왕이라 일컬었는데, 하루아침에 형세가 궁색해져 몸을 굽혀 섬겨야 하니 매우 부끄럽구나”라고 말했다. 허유는 전

---

田橫之死. 而死不見義於世, 徒以狷忿殺身者, 比論而並稱, 則橫之目將不瞑於泉下, 此尤可悲也. … 余觀於歷代興廢之際, 得其處義之正者, 凡有四人焉. 殷之箕子·微子, 齊之田橫, 漢之北地王誼是已.”

16) 許愈, 『后山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327) 卷10, 「答朴貞獻升奎問目」, p.248, “齊田橫, 何以爲義死乎? 橫之死, 非爲楚也, 非爲齊也. 橫之心, 只曰我與漢王俱南面稱王, 一朝爲勢所迫, 屈身而事之, 耻之甚也. 羞惡之心如此, 其義盛矣. 何可謂非義死乎?”

횡의 이 말이 바로 수오지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전횡이 의롭게 죽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전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도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전개한 글이다.

(4)

횡은 도리어 항우의 구원을 빌려서 한나라를 막고 한나라의 토벌이 두려워 달아났다. 혈혈단신으로 오백 명과 함께 바닷가로 죽음을 피해 달아났으니 義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략) 횡은 烈士이다. 초·한의 시대를 만나 끝내 아첨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남의 아래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낙양에서 자살하였으니, 또한 꺾을 수 없는 뜻은 있었다.<sup>17)</sup>

(5)

가령 천명과 인심이 이미 한나라에 돌아가 사람의 계책이 비록 묻혀서 어쩔 수 없었다면 마땅히 성을 등지고 한바탕 전투를 벌여 원수를 갚는 大義에 죽는 것이 옳다. 한 번 한나라 사신을 만나 크게는 왕, 작게는 후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갔다. 천리 길에 역마를 타고 명을 받들어 분주하게 가다가 계책이 줄고 형세가 궁해진 뒤에 도랑에서 칼을 안고 쓰러지니 이 어찌 義士인가? 나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횡은 작은 은혜로 인심을 얻은 것은 있으나 大義는 듣지 못했다.”<sup>18)</sup>

(6)

전횡은 패하자 이내 초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초나라는 바로 그 부형의 원수였다. 차라리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지언정 어찌 차마 초나라에 애걸을 한단 말인가. 대저 夫差는 越나라에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패자가 된 것이니,

17) 金就文, 『久庵集』(『韓國文集叢刊』續2) 卷2, 「田橫論」, p.353, “橫反假項氏之救而距漢, 懼漢氏之誅而逃遁. 子子與五百人, 避死海濱, 可謂義耶? … 橫, 烈士也. 當楚漢之際, 終不奴顏婢膝, 屈於人下, 而殺身洛陽, 亦有不挫之志.”

18) 金萬英, 『南圃先生集』(『韓國文集叢刊』續36) 卷13, 「田橫論」, p.427, “假使天命人心已歸於漢, 人謀雖臧, 無可奈何, 則當背城一戰, 死於復讎之大義可也. 一見漢使, 誘於大王小侯之利. 千里乘傳, 奉命奔走, 至於計縮勢窮然後, 伏劍溝瀆, 是何義耶. 愚故曰橫以小惠結人心則有之, 不聞其大義也.”

전횡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누가 횡을 맹렬한 장부라고 하는가.<sup>19)</sup>

(4)는 金就文(1509~1570)이 지은 「田橫論」이다. 그는 전횡에게 義는 어울리지 않고, 烈士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했다. 전횡은 항우와 원수 지간인데도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원수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또 적군의 토벌이 두려워 바닷가로 달아난 것은 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끝내 한 고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살했으니 꺾을 수 없는 절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였다.

(5)는 金萬英(1624~1671)이 지은 「田橫論」이다. 그는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에 끝까지 응하지 말고, 한바탕 전투를 벌여 싸웠어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횡이 자결한 것을 두고서 ‘명을 받들고 가다가 계책이 줄고 형세가 궁해진 것을 깨달아서 죽었다’고 혹평을 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전횡의 자결을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높은 절개로 평가한 반면, 김만영은 전횡이 더 이상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고, 형세를 보아 자신이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자결했다고 하였다. 이는 전횡의 자결도 그 동기를 생각하여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6)의 成大中(1732~1809)은 이보다 더 날카로운 평을 내리고 있다. 그는 전횡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다급한 상황에서 원수의 나라인 초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4)의 김취문이 이미 이 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성대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취문이 마지막에 ‘전횡에게 꺾을 수 없는 절개가 있다’고 했지만, 성대중은 이마저도 부정해 버렸다. 성대중은 이 글의 끝에서 “군대는 한신에게 패하고, 자신은 팽월에게 숨었다가 섬으로 도망가서 구차히 목숨을 부지했다. 하지만,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하여 목을 베어 한나라에 바쳤으니, 애처롭다.”<sup>20)</sup>고 하였다. 그는 전횡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19) 成大中, 『青城集』(『韓國文集叢刊』 248) 卷8, 「田橫論」, p.496, “橫之敗也, 乃請救於楚, 楚卽其父兄之讎也. 寧以國弊, 忍乞哀於楚哉. 夫差惟能報越故霸焉, 橫之無成固也. 孰謂橫烈丈夫哉.”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닌 것을 ‘구차하다[苟]’는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전횡의 최후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자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이 전횡을 평가한 것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그 구분의 중심에는 전횡에게 義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었다. 義는 성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으로 조선 지식인이 이를 기준으로 전횡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전횡이 새롭게 부각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상으로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논평한 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평을 바탕으로 한중 지식인의 시작품 속에 전횡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시작품은 그 작가의 내면 깊은 곳의 정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리학적 의리사상을 완전히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논평한 글보다는 진솔한 감정을 드러다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전횡이 오랫동안 한중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Ⅲ. 시작품 속 전횡 형상<sup>21)</sup>

앞 장에서는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 의론문에 등장하는 전횡을 위주로 살

20) 成大中, 『青城集』 卷8, 「田橫論」, p.496, “兵敗於韓信, 身竄於彭越, 逃之海島以苟免也. 終亦不免焉, 刎首以貢之漢, 可哀也哉.”

21)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찾는 경로를 밝힌다. 중국 시작품의 경우 청나라 이전은 『四庫全書』(skqs.nlic.net.cn:8000)에서 찾았고, 청나라 이후는 搜韻(sou-yun.com)에서 찾았다. 때때로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웹사이트(참고문헌에 기재)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국 시작품의 경우는 오로지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서 찾았다. 검색한 시 중에서 전횡을 주제로 읊은 시를 처음으로 뽑고, 그 외에는 전횡을 끌어와 형상화할 때 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시를 뽑았다.

펴보았다. 그런데, 전횡과 오백 빈객의 자결은 다분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장에서는 한중 지식인의 시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횡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의 경우는 작가의 감정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에 전횡을 형상화 하는 한중 지식인의 솔직한 측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1. 인간적인 면모(중국)

중국에서 『사기』는 당나라 때 많이 읽혀졌지만, 전횡의 시는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이었다.<sup>22)</sup> 본격적으로 전횡을 주제로 읊은 시는 송나라 때 처음 나타난다. 다음은 북송시대 시인인 唐庚(1070~1120)의 「過田橫墓」 두 수 중 첫 번째이다.

成則爲王敗則亡	성공하면 왕이 되고 패하면 죽게 되는
英雄成敗本尋常	영웅의 성패는 본래 일상적인 일이건만
滄溟無際何妨死	끝없는 바다에서 어찌 죽기를 꺼려하여
却死東郊未耿光	도리어 東郊에서 죽으니 빛나지도 않구나. <sup>23)</sup>

당경은 역사상 영웅들이 성공하여 왕이 되거나, 패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전횡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섬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죽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 고조의 부름을 받아 낙양으로 가다가 자결하였다. 당경은 이러한 전횡의 자취에 끝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는 이 시의 두 번째 수에서 “만약 역생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장군이 여기[한나라]에 와서 또한 무

22) 李白, 『李太白文集』 卷10, 「於五松山贈南陵常贊府」(四庫全書/集部), “… 海上五百人, 同日死田橫. 當時不好賢, 豈傳千古名. 願君同心人. …”; 卷19, 「奔亡道中五首-江東」(四庫全書/集部), “蘇武天山上, 田橫海島邊. 萬重關塞斷, 何日是歸年.”

23) 唐庚, 『眉山集』 卷10, 「過田橫墓」 其一(四庫全書/集部).

엇을 하겠는가? [脫使酈生猶未死, 將軍來此亦何爲.]”라고 하여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에 응한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다.

당경은 영웅이라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호방한 뜻을 한 번 펼쳐보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전횡이 역생[역이기]을 죽이지 않아서 한나라 왕실에 들어갈 명분이 있더라도, 처음 왕실을 일으키려고 한 뜻을 꺾은 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당경은 전횡의 무덤까지 그리 빛나지 않는다고 읊었다.

다음은 원나라 때 강직한 학자인 王惲(1227~1304)의 가사이다.

秦以帝稱	진시황이 황제라 일컬으니
魯連之所恥兮	노중련이 부끄럽게 여겼고
漢以劒起	한 고조가 검을 차고 일어나니
布衣之所極兮	포의로 극에 달했는데
橫王東海	전횡은 동해의 왕이 되었건만
意不充其覬兮	바라던 뜻을 채우지 못했구나.
天命攸歸	천명이 돌아가는 바를
吾將奚所適兮	내가 어떻게 따르겠는가?
死或當理	죽음도 혹 이치에 합당하면
庶烈士之則兮	열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sup>24)</sup>

왕운은 偃師로 가는 길에 田橫墓의 앞을 지나다가 전횡의 절의에 감동하여 이 歌辭를 지었다. 그는 첫 구절에서 “진시황이 황제라 일컬으니 노중련이 부끄럽게 여겼다”고 읊었다. 이는 노중련이 “저 秦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머리 베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나라이다. 법으로 그 선비를 부리고, 노예처럼 그 백성을 부리니 저 나라가 제멋대로 황제를 칭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천하에 정치를 행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을지언정 차마 그 백성이 되지는 않겠다.”<sup>25)</sup>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읊은 것이다.

24) 王惲, 『秋澗集』 卷65, 「田橫墓歌辭」(四庫全書/集部).

25) 司馬遷, 『史記』, 「魯仲連列傳」, “彼秦者, 棄禮義而上首功之國也. 權使其士, 虜使其民, 彼即肆然而爲帝, 過而爲政于天下, 則連有蹈東海而死耳, 吾不忍爲

노중련이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된다. 그 뒤 진나라가 망할 무렵 한 고조는 포의의 신분에서 일어나 천자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데, 전황은 동해의 왕이 되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할 수밖에 없었다.

왕운은 진시황, 한 고조, 전황의 운명을 모두 천명으로 여겼다. 그리고 천명을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전황처럼 이치에 합당한 자결은 오래도록 열사들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황이 이치에 합당한 죽음을 실천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앙하고 있다.

다음은 원나라 때 서화로 이름난 馬臻(1254~?)의 「詠田橫」 두 수이다.

漢家天子詔遺臣	한나라 천자가 제나라 유신을 부르니
恰是恩多慮轉深	은혜가 두텁고 사려가 깊은 것 같은데
忠義自能輕一死	충의는 자연히 한 번 죽음 가볍게 여기고
可憐門客盡同心	가련한 문객들도 모두 한 마음이었네.

海日荒荒海氣涼	바다 해는 쓸쓸하고 바다 공기 차가운데
一思前事一心傷	지난 일을 생각하니 온 마음이 상심되네.
繇來匪石終難轉	원래 돌이 아니면 끝내 굴릴 수 없다했으니
不是將軍畏鄺商	장군이 역상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네. <sup>26)</sup>

첫 수에서는 한 고조를 전황과 그의 문객의 죽음에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한 고조가 전황을 부른 것이 은혜를 내려준 것 같지만, 전황은 충의가 있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고, 그 문객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모두 자결을 했다고 하였다. 한 고조가 전황을 부른 것이 결국 전황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고, 나아가 전황의 문객들 역시 죽게 만들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특히 승구에서 ‘恰’자를 쓴 것은 한 고조의 내심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之民也.”

26) 馬臻, 『霞外詩集』 卷6, 「詠田橫」 二首(四庫全書/集部).

마진은 이 시에서 한 고조가 결코 전횡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북송 때 司馬光이 “비록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한 고조의 신하가 되었다라도, 한신과 팽월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直使強顏臣漢帝, 韓彭未必免同誅.]”<sup>27)</sup>라고 읊은 것과 상통한다. 결국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에 응하긴 했지만, 도중에 자결한 것은 죽음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다.

두 번째 수에서는 전횡이 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읊었다. 기구와 송구에서는 쓸쓸한 정경과 지난날의 후회를 통해 죽음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전구에서는 전횡의 굳은 절개를, 그리고 결구에서는 기존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전구는 『詩經』을 인용하였다. 「國風·柏舟」에서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니, 끝내 굴릴 수 없다.”<sup>28)</sup>고 하였다. 이는 ‘돌은 굴릴 수 있으나, 마음은 굴릴 수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횡이 자결한 것은 역이기의 동생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죽기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진은 첫째 수에서 한 고조의 부름에 의해서 전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을 읊고, 둘째 수에서는 평소 전횡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굳은 절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횡의 충의와 굳은 절개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은 명나라 胡以溫(1624~?)의 「田橫島」이다.

如陣愁雲結不開	시름 구름 진을 치듯 뭉쳐져 있는 채로
悲風連日度樓來	슬픈 바람 매일같이 누각 향해 불어오는데
坐臨滄海矚孤島	푸른 바다 향해 앉아 우뚝한 섬 바라보다
悵望斜陽酒一杯	지는 태양 안타까워 한잔 술을 따르노니
慷慨當年多壯士	옛적 그해 강개했던 장사들이 많았기에
蕭條千古歎殊材	친고토록 쓸쓸하게 죽은 인재 탄식하나
英雄失勢尋常事	영웅들의 세력 잃음 늘 벌어지는 일이니

27) 司馬光, 『傳家集』 卷9, 「田橫墓」(四庫全書/集部).

28) 『詩經』, 「國風·柏舟」, “我心匪石, 不可轉也.”



劉漢於今安在哉 한나라인들 지금까지 어찌 보전 했겠는가?<sup>29)</sup>

明나라 胡以溫은 전횡도를 지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전횡도를 둘러싼 구름은 일반 구름이 아니라 시름이 가득한 구름이다. 이 구름은 이 섬에만 뭉쳐져 있으면서 매일 서글픈 바람을 불어오게 한다. 그는 이처럼 슬픔을 띤 채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섬을 보며 술을 한잔 따른다. 그리고 옛날 전횡을 따라 이 섬에 들어와 절의를 위해 자결한 오백 빈객들을 생각하며 탄식을 한다. 하지만, 오랜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같은 일들은 늘 벌어지는 일이다. 비단 전횡과 오백 빈객에게만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는 않았다. 당시 천하를 차지했던 한나라 역시 역사의 한 시기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호이온은 전반부에서 전횡도의 오백 빈객을 떠올리며, 이들에 의해 섬 전체에 감도는 쓸쓸한 분위기를 읊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오랜 역사를 통해보면, 이들과처럼 세력을 잃은 경우는 늘 있는 일이라며 역사의 한 부분으로 돌리고 있다. 전횡도의 슬픔에 빠졌다가 다시 이성을 찾아나가는 작자의 감정 전환이 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결국 그에게 전횡과 전횡도의 오백 빈객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다음은 청나라 초기 大學士인 陳廷敬(1639~1712)이 한나라 때 일을 읊은 시, 「詠漢事」 중의 제6수이다.

田橫能得士	전횡이 선비를 얻을 수 있어서
高義陵千秋	높은 의리가 천년 넘게 이어졌네
橫來大者王	전횡이 오면 크게는 왕이 되고
橫來小者侯	전횡이 오면 작게도 후가 될 것이나
慷慨五百人	강개한 오백 명의 빈객들은
不與韓彭儔	한신·팽월의 무리와 같지 않았으니
富貴苟不樂	부귀를 구차하게 즐기지 않고
沈殞遂所求	죽는 것이 곧 원하는 것이어서
至今滄海上	지금까지도 푸른 바다 위에는

29) 胡以溫, 『山東通志』 卷35, 「田橫島」(四庫全書/史部).

天風激清流 하늘 바람이 맑은 물결 일게 하네.<sup>30)</sup>

전횡의 의리가 천년 넘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오백 명의 빈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한신과 팽월의 무리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모두 자결을 선택했다. 한신과 팽월의 경우 부하의 변절에 의해 결국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따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전횡을 따르던 오백 빈객은 그렇지 않았다.

진정경은 이 시에서 전횡과 오백 빈객을 한신과 팽월에 비교하여 더 높이 추앙하고 있다. 특히 전횡이 죽은 뒤에 그의 오백 빈객이 구차하게 부귀를 즐기지 않고 자결한 일은 천추에 다시 있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 의리가 남아서 섬 주변에 맑은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자결한 오백 빈객과 이들을 얻은 전횡을 모두 높이 추앙하고 있다.

다음은 청나라 말 애국시인 丘逢甲(1864~1912)이 田橫을 읊은 시이다.

有士五百人 오백 명이나 되는 선비가 있었으니  
島中猶可國 섬이라도 오히려 나라를 세울 수 있건만  
何事奉頭來 무슨 일로 머리를 바치러 오는가  
秋風洛陽陌 낙양 거리 갈바람에 쓸쓸도 한데<sup>31)</sup>

전횡은 자기를 따르는 빈객이 오백 명이나 있었으니 섬으로 도망쳤더라도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고조가 부른다고 해서 길을 나서게 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 길에서 자기 머리를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인가?

구봉갑은 이 시에서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에 응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읊고 있다. 하지만, 전횡은 길을 떠났고, 가는 길에 자결을 했다. 구봉갑은 전횡이 길을 떠날 때 이미 죽음은 당연한 결과로 여겼다. 이러한

30) 陳廷敬, 『午亭文編』 卷3, 「詠漢事」 六首(四庫全書/集部).

31) 丘逢甲, 『嶺雲海日樓詩鈔』 卷7, 「詠史四絕句和曉滄·田橫」.

안타까운 심정을 그는 절구에서 ‘낙양 거리가 가을바람에 쓸쓸하다’고 형상화하고 있다.

역시 청나라 말 林耀亭(1868~1936)이 읊은 「田橫」이다.

自立存齊志亦豪    자립하여 나라 지킬 뜻도 있고 호기로우나  
 奈因天命戡弓刀    어찌하랴 천명이니 활과 칼을 거두고서  
 臨終不屈稱孤顛    죽음에도 굽히지 않고 고라 칭하길 원하더니  
 留得頭顱見漢高    머리를 남겨 주어 한 고조가 보게 했네.<sup>32)</sup>

전횡이 자립하여 제나라의 왕이 된 것은 뜻도 있고 호기로운 일이었지만, 천명이 이미 한나라로 돌아갔으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자결을 선택했다. 한 고조에게 무릎을 굽히지 않고, 임금으로 남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횡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천명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굽힐 수 없는 강개한 절개로 인해 자결을 하게 되었다.

임요정은 전횡이 천명을 얻지 못한 채 절개를 위해 자결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특히 절구에서 ‘머리를 남겨 한 고조가 보게 했다’고 읊으며 비참한 최후를 표현하였다.

끝으로 대만의 저명한 애국시인인 連橫(1878~1936)이 전횡을 읊은 시이다.

五百人從死    오백 명의 빈객을 따라 죽게 한  
 亟頭入漢廷    그 머리를 주저 없이 한나라에 보냈으니  
 封王何足貴    왕으로 봉하더라도 어찌 귀했겠는가?  
 北面恥韓彭    북면하는 것은 한신과 팽월에게 부끄러운데<sup>33)</sup>

전횡이 자결을 선택해서 남아 있던 오백 명의 빈객들이 따라 죽었다.

32) 林耀亭, 「田橫」.

33) 連橫, 『劍花室詩集』, 「咏史·田橫」.

물론 전횡은 죽기 전에 오백 빈객이 자기를 따라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횡의 자결이 원인이 되어 결국 오백 명이 죽게 되었다. 연횡은 여기에서 오백 명을 죽게 만든 전횡의 자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다. 그리고 전횡의 자결은 오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니, 한 고조가 왕으로 봉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결국에서 한신과 팽월이 부끄럽게 여긴 ‘北面’을 그 이유로 들었다. 즉, 무릎을 꿇어 신하가 되는 것은 자신과 오백 명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전횡의 고상한 절개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상의 중국 시작품 속에서 전횡의 모습은 다양한 측면에서 형상화되었다. 전횡이 고조의 부름에 응한 것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고, 천명을 알고서 이치에 합당하게 죽어서 오래도록 추앙을 받았다고도 하였다. 한 고조의 부름이 곧 죽음인 것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으며, 전횡의 고사를 단지 역사의 일부분으로 보고 읊기도 했다. 전횡뿐만 아니라, 오백 빈객들의 절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고, 전횡과 오백 빈객의 목숨을 잃어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고상한 절개를 읊기도 했다. 특히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에 응한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읊은 시들이 많았고, 전횡의 영웅적인 절의를 추앙하는 시보다는 천명을 언급하며 전횡의 고사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節義의 田橫島(한국)

이 절에서는 한국 지식인의 시에서 전횡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sup>34)</sup> 한국에서 전횡을 주제로 읊은 시는 성리학이

34) 그동안 전횡과 관련된 한시 연구는 ‘오호도’를 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호진, 「嗚呼島에 대한 認識과 形象化 研究」, 『동방한문학』 제61집, 동방한문학회, 2014.; 申斗煥, 「韓·中 交流史에 나타난 ‘田橫島(嗚呼島)’

들어온 고려 말엽부터 등장한다. 이는 성리학의 핵심이 되는 의리사상이 전횡의 절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은 고려 말 성리학의 시조로 불리는 鄭夢周(1337~1392)가 전횡을 읊은 시이다.

五百人爭爲殺身	오백 빈객 서로 먼저 목숨을 끊으니
田橫高義感千春	전횡의 높은 절의 천년토록 감동을 주는데
當時失地夫何責	그 당시에 잃은 땅을 어찌 나무라겠는가?
大漢寬仁得萬民	한나라가 관용과 사랑으로 만백성을 얻었으니 <sup>35)</sup>

전횡이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섬에 남은 오백 빈객이 그를 따라 일제히 목숨을 끊으니, 그의 높은 절의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이 일은 천년 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전횡이 끝내 한나라에 땅을 빼앗긴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한나라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만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천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전횡인들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정몽주는 오백 빈객의 죽음이 전횡의 절의를 더욱 빛나게 하여 오래도록 추앙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명이 이미 한나라에 기울어 있었으니, 그가 실패한 것도 어찌면 당연한 결과로 여겼다. 정몽주가 살던 시대는 국외는 원명교체기였고, 국내는 여말선초였다. 그 역시 천명이 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음으로 의리를 실천한 것을 이

---

의 형상성 연구, 『제113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회의 2015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대동한문학회, 2015.). 오호도는 전횡이 마지막에 오백 빈객과 함께 들어간 중국 동해의 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섬이 서해안에 있다고 여겨졌으며 전횡과 오백 빈객의 의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전횡과 관련된 한국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 나오는 자료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자료가 일부 겹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호도’를 형상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국 지식인들이 오호도 시를 통해 전횡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35) 鄭夢周, 『圃隱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5) 卷1, 「田橫島」, p.575.

시에서 읽을 수 있다.

다음은 1384년 정몽주가 성절사로 명나라에 갈 때 典校副令으로 따라간 정도전이 오호도를 보고 전횡을 조문한 시이다.<sup>36)</sup>

曉日出海赤	새벽 해 바다 위를 붉게 솟아
直照孤島中	곧장 우뚝한 섬을 비추는데
夫子一片心	부자의 한 조각 붉은 마음이
正與此日同	정녕 이 해와 같으리라
相去曠千載	천년이나 서로 떨어졌지만
嗚呼感予衷	아! 내 마음이 감격하여
毛髮豎如竹	머리카락이 대처럼 쭈뼛 서고
凜凜吹英風	으시시 영풍이 불어오누나. <sup>37)</sup>

1384년 대명사행은 해로를 통해서 갔다. 이때 요동반도 旅順口에서 산둥반도 登州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오호도를 지나게 되었다. 정도전은 오호도를 보고서 전횡을 떠올렸다.<sup>38)</sup> 새벽 해가 푸른 바다에서 붉게 솟아올라 전횡이 마지막으로 피난했던 섬을 곧장 비추는데, 이것이 바로 전횡의 一片丹心과 같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횡과는 천년이란 긴 시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머리카

36) 이 시는 徐居正의 『東人詩話』에 李穡과 李崇仁에 얽힌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이색이 이승인이 지은 「嗚呼島」를 칭찬하자, 정도전은 자신의 시 실력도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이색에게 보였다. 하지만, 이색은 이승인의 시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윤호진의 「嗚呼島에 대한 認識과 形象化 研究」(앞의 논문, pp.261-267.)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37) 鄭道傳, 『三峯集』 卷1, 「嗚呼島弔田橫」. (신호열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7. 참고.)

38) 여기에서 정도전은 오호도를 전횡이 마지막에 피난한 전횡도로 인식하고 시를 지었다. 오호도와 전횡도의 지리적인 고증을 펼친 논문이 있다. (윤호진, 앞의 논문.; 이성형, 「'廟島'와 '嗚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 對明海路使行錄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제90집, 대동문화연구원, 2015.; 申斗煥, 앞의 논문.)

락이 대나무처럼 쭈뼛 서게 만들고 그 당시 영웅의 기개가 바람이 되어 불어온다고 하였다.

정도전은 전횡이 일편단심을 지닌 인물로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높은 절개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수련에서 푸른 바다와 붉은 해를 대비하여 전횡의 일편단심을 더욱 드러나게 형상하였는데,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기도 했다.<sup>39)</sup>

申欽(1566~1628)은 1622년 해로로 연경에 가는 동지사 李顯英을 전송하며 시 2수를 지었다. 그 중 두 번째 수에서 전횡을 읊고 있다.

常怪田橫士	항상 괴이한 건 전횡의 빈객들은
多哉五百人	그 수가 오백 명이나 된다는데
君應過此島	자네는 이 섬을 꼭 지나갈 테니
餘烈亦精神	남긴 공렬과 정신 볼 수 있겠지
正氣乾坤在	바른 기운 천지 사이 남아 있다면
危途節義新	위험한 길을 가며 절의가 새롭겠지
艱虞寡安枕	근심 속에 편안히 잠 못 이루니
天下屬風塵	이 세상이 풍진 속에 달려 있다네 <sup>40)</sup>

1622년은 누루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요동을 차지해서 육로가 막힌 상황이었다. 사신단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야했기에 많은 관리들이 꺼려했다. 특히 바닷길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모두들 피하려고 뇌물을 주기까지 했다.<sup>41)</sup> 하지만, 동지사 이현영은 두 말 없이

39) 이색은 이 시에 대해서 “이 시는 비록 전횡을 논한 것이나, 결국 자신의 말을 자신이 한 것이다[此雖論橫 乃所以自道也]”라고 평을 했다. (鄭道傳, 『三峯集』 卷8, 『諸賢叙述』. (홍찬유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7. 참고.))

40) 申欽, 『象村先生集』 卷11, 『別冬至使李僉知(顯英)泛海朝京』. (송기채 역, 한국고전번역원, 1994. 참고.)

41) 1621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당시에 요동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끊어져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처음으로 水路를 개척하였는데,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鐵山의 튀어나온 곳에 이르러 으레 침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신 康暉과 서장관 鄭應斗 등도 연이어

길을 떠났다. 신희이 그의 용기에 감복하여 이 시를 지어 주었다.

당시 사신단이 배로 서해를 건너면 전횡이 마지막으로 피난 간 섬을 지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신희는 자연스럽게 전횡의 고사를 시에서 읊었다. 그는 평소 전횡의 고사를 접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지만 높이 추앙할만한 일이 바로 섬에 남은 오백 빈객이 모두 전횡을 따라 자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는 상대에게 오백 빈객이 남긴 공렬과 정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백 빈객이 남긴 바른 기운이 남아 있으면 위험한 해로사행이지만, 이를 통해서 절의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미련에는 비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세상이라서 근심 속에서 잠 못 이룬다고 하며, 오백 빈객이 보여준 절의가 지금 세상에는 행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섬에서 자결한 오백 빈객의 절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624년 북경으로 간 李德涇(1566~1645)도 해로를 통해 갔다. 이때 金尙憲(1570~1652)이 전송한 시가 있다.

登州西望海茫茫	서쪽으로 등주 보면 푸른 바다 망망하여
萬里波濤接帝鄉	만 리 멀리 이는 파도 중국 땅에 접했으니
帆上好風消十日	돛 위에는 좋은 바람 열흘 동안 불 것이고
樽前別淚漫千行	술통 앞엔 이별 눈물 천 줄기로 흐르겠지
翠供詩筆田橫島	전횡도의 푸른빛은 시 짓는 붓 잡게 하고
緇闢書帷稷下堂	직하당의 검은 휘장 서재 열려 있겠구려
行路莫言辛苦事	가는 길에 고생 겪는 일일랑은 말을 마소
國恩隨處摠觀光	국은 받아 곳곳마다 관광 두루 할 것이니 <sup>42)</sup>

빠져 죽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두 사신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자 도모하여 뇌물을 쓰고 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광해 13년 4월 13일>.; “당시 해로사행의 노정과 관련된 제반사실이 안정복의 『列朝通紀』(인조 8년 4월, 『順庵全書』 下, pp.451-452.)에 있다.”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 연행록: 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 제9권, 한국실학학회, 2005, p.7. 각주2 재인용.)



시에 나오는 등주는 고려 말 해로사행이 지나던 곳으로 200년 뒤 명 청교체기에 육로가 막히어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지금의 산동반도 북동쪽에 있는 봉래현이 이곳이다.

김상헌은 이덕형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등주가 있는 서쪽으로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상대는 육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험난한 해로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중국으로 가는 뱃길에 좋은 바람만 불어주길 빌어 주었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상대가 자기와의 이별만을 슬퍼할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한 뱃길에서 단지 자신과의 이별만이 근심거리일 것이라고 위로한 것이다. 그리고 사행을 통해 전횡도를 볼 수 있고, 명 황실에서는 많은 책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임금님의 은혜로 여러 곳을 두루 관광하는 것이니 고생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전횡도는 사행에서 중요한 볼거리로 여겨져 해로사행의 두려움과 여정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전횡의 고사가 그만큼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sup>43)</sup>

다음은 李海應(1775~1825)이 1803년 연행에서 지은 『蕪山紀程』에 실린 내용이다.

滄溟環抱古齊都	푸른 바다 둘러 있는 제 나라의 옛 도읍지
一點嗚呼翠欲無	한 점 오호도는 푸르러서 사라지려하니
厭見東人皮幣役	조선 사람 폐물 행렬 보기가 싫어선지
陰雲長護半洋途	바다 한 가운데 먹구름이 늘 싸고 있네 <sup>44)</sup>

42) 金尙憲, 『淸陰集』 卷6, 「送李知樞遠伯朝京」. (정선용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6.)

43) 전횡도가 해로사행에서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점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서해안 몇몇 섬의 해신이 되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논문은 김효경의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해에 어업이 성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어물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새로운 신령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전횡을 신격화 했다고 하였다. (pp.193-194. 참고.)

그는 육로로 사행을 가는 길에서 남쪽으로 발해를 보고 이 시를 지었다. 시의 앞부분에 ‘嗚呼島’라는 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짧은 서문이 실려 있다.

塔山所에는 흙 언덕이 하나 있다. 여기를 들러 남쪽으로 발해를 바라보며 가다가 이곳에 이르러서 점점 가까워지면 오호의 소리가 들린다. 이 섬은 바다 동쪽에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田橫島이다. 날이 맑을 때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sup>45)</sup>

탐산소는 산해관을 가기 전에 있는 곳으로 현재 요녕성葫蘆島市連山區에 있다. 이곳은 남쪽으로 발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연행길에서 압록강을 건너 내륙을 가다가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넓은 바다를 보게 된다. 여기부터 바다를 보면서 가다보면 어느 순간에 ‘오호’라고 하는 탄식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이 오호도이며 바로 ‘전횡도’라고 하였다.<sup>46)</sup>

이해응은 탐산소를 지나 남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어느덧 ‘오호’의 소리가 나는 곳까지 왔다. 그곳에는 저 멀리 오호도를 볼 수 있다. 하

44) 李海應, 『薊山紀程』 卷2, 「嗚呼島」. (차주환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6. 참고.)

45) 李海應, 『薊山紀程』 卷2, 「嗚呼島」, “塔山所有一土阜周遭. 南望渤海, 至此而漸近, 聞有嗚呼. 島在海之東, 是所稱田橫島. 若值天清時可見云, 而不可知的在河邊.”

46) 여기에서 말한 전횡도는 중국 정부에서 1992년 山東省 靑島市 即墨縣의 동쪽에 문물보호구로 지정한 전횡도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에 의해 가려져 있다. 게다가 이곳을 전횡도라고 확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해응에게 전횡도는 중국에서 보는 바다의 상징적인 섬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이곳에서 발해를 보며 전횡도를 떠올리며 시를 읊었다. 崔崧의 「산해관의 관해정에 올라」에서도 전횡도를 읊고 있다. (崔崧, 『簡易集』 卷6, 「山海關登觀海亭」 (이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0.)); 이유원의 경우 사행길에서 葫蘆島의 남쪽으로 보이는 섬을 가리켜 오호도로 여기고 시를 지었다. (李裕元, 『嘉梧藁略』(『韓國文集叢刊』 315) 冊2, 「塔上望嗚呼島」, p.59.)

지만, 푸른 바다에 둘러 싸여 있는 오호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오호도는 오백 빈객들의 절의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어서 바다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해응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흐렸다. 그는 먹구름 낀 뿌연 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오호도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호도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폐물 행렬을 보기 싫어서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동지사의 일행으로 연경에 가는 길이었는데, 해마다 많은 폐물을 연경으로 가져가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전횡이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끝내 자결하고, 오백 빈객은 전횡의 의리를 잊지 못해 자결한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행렬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전횡도는 전횡과 오백 의사의 절의가 서려있는 섬이었다.

이해응과 같은 시기에 여항시인으로 잘 알려진 朴允默(1771~1849)은 바닷가에서 전횡도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翠黛一點白雲間	흰 구름 사이에 푸른 산 한 점
居人說是泮洋山	그곳 사람들은 반양산이라고 하네
泮洋山中故齊王	반양산 속의 옛 제나라 왕은
漢祖當年避塵寰	한고조 당년에 티끌세상을 피해왔네
恰似魯連蹈東海	노중련이 동해를 밟은 것과 흡사하고
又如季札逃荊蠻	또 계찰이 형만으로 도망간 것과 같네
可憐洛陽三十里	가련하다 낙양까지 삼십 리를 남겨두고
忠魂毅魄竟不還	충혼과 의백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으니
五百義士一何壯	오백 의사 하나같이 어찌 그리 장했던가?
可以立懦而廉頑	나약한 자 세워주고 완악한 자 곧게 했네
至今山頭幾千年	지금까지 산머리에 몇 천 년이었던가?
一間茅屋奉遺顏	한 칸의 띠집에는 초상화를 봉안했네
春秋香火以鼓吹	봄가을로 향을 피워 의식을 지내노라면
肅然風來海之灣	숙연한 바람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데
庚寅往事何靈異	경인년의 지나간 일 어찌 그리 영험한가?

海民歎仰爲之漣    바닷가 주민들이 탄식하며 우러러 눈물 흘리네  
 天涯層浪何渺茫    하늘가의 층층 파도 어찌 그리 아득한가?  
 臨風可望不可攀    바람 맞으며 바라볼 수 있으나 잡을 수는 없네.<sup>47)</sup>

박윤묵은 연행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보았다고 한 전횡도는 앞에서 살펴본 연행에서 본 오호도 및 전횡도와는 다른 섬이다. 그의 행장을 살펴보면, 1835년에 平薪鎭 첨사가 되어 서해안 바닷가에 부임된 적이 있다.<sup>48)</sup> 평진진은 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데, 이곳은 도서 지방을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 전횡도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시에서 ‘반양산’이라고 한 것을 보면, 현재 충남 보령시에 소속된 외연도를 전횡도로 여기고 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9)</sup>

그는 서해안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횡도를 바라보며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읊었다. 전횡이 오호도에 있는 반양산에 들어간 것을 魯仲連이 진나라가 황제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동해로 간 것과 季札이 왕위를 피해 도망간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반양산의 한 칸 띠 집에 초상화가 봉안되어 매년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 경인년에는 직접 강신하여 제사지내는 사람들에게 말까지하며 영험한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였다.<sup>50)</sup> 그 결과 주민들이 더욱 감격하여 전횡을 우러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47) 朴允默, 『存齋集』(『韓國文集叢刊』 292) 卷11, 「海邊望田橫島」, p.205.

48) 朴允默, 『存齋集』 卷26, 「行狀(金周教)」, p.508, “憲宗乙未, 以敦匠勞特除平薪鎭僉使.”

49) 외연도에는 아직도 전횡 사당이 있으며 사당 안에 있는 「田公祠堂記」에 전횡이 오백 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半洋山(기문에서는 ‘半’으로 썼으나, 시에서는 ‘泮’으로 쓰고 있음)에 들어와 살았다는 내용이 있다. 기타 외연도와 관련된 연구는 이경엽·송기태의 앞의 논문과 김효경의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50) 이 시의 원주에 “신이 제사지내는 사람에게 내려와 말하길, ‘너희 나라의 상복으로 나의 제사를 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고 하였다.[神降于祭者曰, 以汝國之喪服, 行吾之祭非禮云.]”는 내용이 있다. 이 점은 전횡이 서해안에서 신격화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박윤묵은 이 시에서 전횡의 절의를 노중련과 계찰에 비유하여 추앙하고, 특히 전횡이 이 섬의 사당에 모셔져 신령스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읊고 있다.<sup>51)</sup>

이외에도 盧守愼은 “전횡도의 오백 빈객은 공자 문하의 삼천 제자라네[五百田橫島, 三千孔子庭.]”<sup>52)</sup>라 하여 전횡의 오백 빈객을 공자의 삼천 제자에 비유하였다.

權斗經은 보령으로 발령 받아서 가는 벗에게 “서복의 배는 어디로 갔는가, 전횡도는 여전히 푸르구나[徐市舟何往, 田橫島尙靑.]”<sup>53)</sup>라고 하여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간 서복의 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전횡도에 남아있는 전횡과 오백 빈객의 절의는 여전히 푸르다고 하였다. 申光洙 역시 “오래 동안 머무른 서복의 배는 달이 차고, 내려가려는 전횡도는 별이 오르려고 하네[長留徐市舟中月, 欲下田橫島上星.]”<sup>54)</sup>라 하여 권두경과 같은 의미로 전횡도를 읊고 있다.

이상의 한국 시작품 속에서 전횡의 모습은 전횡과 오백 빈객이 절의를 지킨 것, 오호도를 통해 드러난 전횡의 일편단심, 또는 섬에서 자결한 오백 빈객들의 절의, 이 섬은 험난한 뱃길의 좋은 볼거리가 되어 두려움과 고난을 해소해 주고, 사행에서 바다를 접하거나 서해를 바라보면 전횡과 오백 빈객의 절의로 푸르른 전횡도를 떠올릴 수 있으며, 서해의 어떤 섬에서는 영험한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횡도를 통해 전횡과 오백 빈객의 절의가 아직까지 푸르게 빛나고 있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51) 박윤묵 이외에도 서해안에서 전횡도를 떠올리며 시를 지은 조선 지식인이 있다. 李徽逸의 경우 1656년 외삼촌인 張鐵堅이 호서의 안흥도에 유배가게 되어 따라 갔는데, 이때 전횡도를 보고서 시를 지었다. (李徽逸, 『存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124) 卷1, 「望嗚呼島(田橫所居在安興近處)」, p.21.)

52) 盧守愼, 『蘇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35) 卷3, 「咏十益盡撥古語以記」, p.120.

53)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169) 卷5, 「病中送人之官保寧」, p.92.

54) 申光洙, 『石北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231) 卷7, 「海月樓」 第2首, p.334.

#### IV. 결론

전횡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는데, 그와 그의 오백 빈객은 의리를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한중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평을 짓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횡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국 지식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횡의 절의와 오백 빈객이 전횡에게 심복한 것, 그리고 전횡이 윗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조선 지식인의 경우 전횡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었다. 이들은 성리학 적 의리사상인 義를 기준으로 전횡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이를 통해 보면 중국 지식인들에게서 전횡에 대한 더 다양한 평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작품에서도 전횡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더 다양한 측면으로 형상화 되었다. 영웅적 측면에서의 전횡과 인간적 측면에서의 전횡, 천명을 알고 미리 죽은 점, 역사 속의 한 인물, 무릎을 꿇지 않은 절개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반면 한국 지식인에게 전횡은 전횡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시가 전횡도를 읊으면서 전횡과 그의 오백 빈객의 절의를 읊었다. 전횡도는 오호도 또는 반양산이 있는 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로 사행에서도 보고, 육로 사행에서도 보며, 심지어 충청도 서해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횡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에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섬으로, 전횡과 오백 빈객의 절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지식인이 전횡을 평가하고 형상화하는 데 차이가 나

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는 전횡의 유적지를 실제 답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서적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 지식인이 전횡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며 전횡을 역사 속 한 인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된 반면, 한국 지식인은 전횡도처럼 항상 상상 속에 존재하여 다양한 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관념이 다소 자유로운 반면, 한국은 오로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횡을 성리학적 의리사상인 節義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시간 문화를 공유해 왔다. 중심과 주변으로 한국은 늘 중심을 향해 가려고 했다. 하지만, 중심은 자유롭게 변하는 데 반해 주변은 특정한 사상에 경색되기 쉽다. 역사 속의 인물을 바라보는 한중 지식인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 文獻>

- 『詩經』 『朝鮮王朝實錄』  
 丘逢甲, 『嶺雲海日樓詩鈔』.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69, 한국고전번역원.  
 金萬英, 『南圃先生集』, 『韓國文集叢刊』 續36, 한국고전번역원.  
 金尙憲, 『淸陰集』. (정선용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6.)  
 金就文, 『久庵集』, 『韓國文集叢刊』 續2, 한국고전번역원.  
 盧守愼, 『穌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5, 한국고전번역원.  
 湛若水, 『格物通』. (四庫全書/子部).  
 唐 庚, 『眉山集』. (四庫全書/集部).  
 馬 臻, 『霞外詩集』. (四庫全書/集部).  
 朴允默, 『存齋集』, 『韓國文集叢刊』 292, 한국고전번역원.  
 班 固, 『前漢書』. (四庫全書/史部).  
 司馬光, 『傳家集』. (四庫全書/集部).

- 司馬遷, 『史記』. (丁範鎭의 옮김, 『史記列傳』 中, 까치, 1995.)
- 成大中, 『青城集』, 『韓國文集叢刊』 248, 한국고전번역원.
- 蘇軾, 『東坡全集』. (四庫全書/集部).
-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31, 한국고전번역원.
- 申欽, 『象村先生集』. (송기채 역, 한국고전번역원, 1994.)
- 王紳, 『繼志齋集』. (四庫全書/集部).
- 王惲, 『秋澗集』. (四庫全書/集部).
- 連橫, 『劍花室詩集』.
- 李渠, 『活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續32, 한국고전번역원.
- 李白, 『李太白文集』. (四庫全書/集部).
- 李裕元, 『嘉梧藁略』, 『韓國文集叢刊』 315, 한국고전번역원.
- 李海應, 『薊山紀程』. (차주환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6.)
- 李獻慶, 『良翁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34, 한국고전번역원.
- 李徽逸, 『存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24, 한국고전번역원.
- 林耀亭, 『田橫』.
- 鄭道傳, 『三峯集』. (신호열·홍찬유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7.)
-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5, 한국고전번역원.
- 陳壽, 『三國志·蜀志』. (四庫全書/史部).
- 陳廷敬, 『午亭文編』. (四庫全書/集部).
- 崔岵, 『簡易集』. (이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0.)
- 韓愈, 『昌黎文鈔』. (四庫全書/集部).
- 許愈, 『后山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27, 한국고전번역원.
- 胡以溫, 『山東通志』. (四庫全書/史部).
- 
- 김효경, 「서해의 신령이 된 전횡」, 『역사민속학』 제3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 배종석, 「田橫論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제4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 申斗煥, 「韓·中 交流史에 나타난 ‘田橫島(嗚呼島)’의 형상성 연구」, 『제113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회의 2015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대동한문학회, 2015.
- 沈佑燮, 「麗末鮮初 性理學思想의 현대적 조명 - 전통의리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제2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 윤호진, 「嗚呼島에 대한 認識과 形象化 研究」, 『동방한문학』 제61집, 동방한문학회, 2014.
- 이경엽·송기태, 「서해안 동제의 중국계 신격 전횡 연구」, 『도서문화』 35집, 도서문화연구원, 2010.
- 이성형, 「廟島와 ‘嗚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 對明海路使行錄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제90집, 대동문화연구원, 2015.
-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 연행록: 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 제9권, 한국실학학회, 2005.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古代文獻在線閱讀 (<http://wenxian.fanren8.com>)

文學100 (<http://www.wenxue100.com>)

四庫全書사이트 (<http://skqs.nlic.net.cn:8000>)

搜韻 사이트 (<http://sou-yun.com>)

詩詞網.net (<http://www.shiciwang.net>)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Historical Figures in Korean and Chinese Works*  
- Focused on Tian Heng(田橫) / Bae Jong Suk\*

Tian Heng appeared in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史記] by Sima Qian. Tian Heng and the 500 guests committed suicide for righteousness, which has shocked and moved the Korean and Chinese literati a long time ago. Therefore many literati have been concerned about Tian Heng and there were also lots of essays as well as poems about him.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how the Korean literati and the Chinese literati took a very different view of Tian Heng. The Chinese literati seemed to make more various comments on Tian Heng, as for poems, the Chinese poets also portrayed him in more extensive way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the Korean works and the Chinese works about Tian Heng. First, the Chinese literati could visit the sites about Tian Heng in person while the Korean literati could only learn about Tian Heng through historical records. Second, the Chinese literati could have more free concepts since the change of dynasty, on the contrary, the Korean literati have embraced Neo-Confucianism only.

**【Key words】** Tian Heng[田橫], the 500 guests, the Korean and Chinese literati, righteousness[義理], Neo-Confucianism[性理學]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Ocean University of China, full-time lecturer / bcccs@hanmail.net